

##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성황리에 개최

3개국 35개사 70부스 참여

원자력 설계, 안전운영, 원전기자재 및 설비, 연료 등 에너지 전 분야 총집합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테이프 커팅식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1 한국 원자력연차대회와 병행 개최되었다. 올해 산업전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TP,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가 후원하였다.

이번 산업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프라마툰(Framatome),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오라노(Orano) 등 35개사가 참여하였고 특히, 두산중공업, SK건설 등 6개사가 '신사업관'이라는 부스를 열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산업전에서는 '원자력활용 분야 일자리

박람회', '전력 및 원자력 기자재 구매 상담회',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회', '동반성장사업 설명회' 등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원자력활용 분야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취업설명회', '취업상담회', '취업컨설팅 및 취업체험존'이 개최되어 전력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및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등 경북도 지역 고등학생들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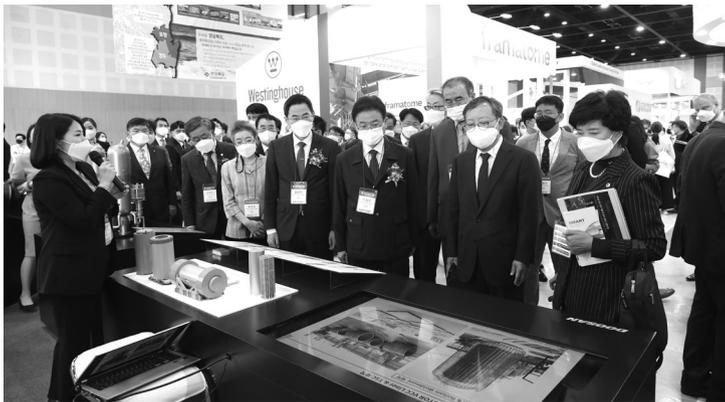
취업설명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등 5개 공기업에서 참여하여 경북 소재 구직자 약 120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취업 전략 및 특징을 소개하였고 취업상담회에서는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원전연료) 등 6개 공기업과 총 152명의 구직자가 기관맞춤형 취업상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취업설명회에서는 면접, 이력서 작성 관련

유명 유튜버의 공개강의를 진행하였고 증명사진 촬영, AI면접, 취업타로 등 취업체험존도 동시에 개최되어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첫 날 진행된 ‘전력 및 원자력 기자재 구매상담회’는 한전, 한수원(본사, 월성, 한울, 고리, 새울, 한빛본부), 발전 5사(동서, 남부, 남동, 중부, 서부), 전력기술, 한전KPS, 원전연료 등 10개 기관 15개 본부에서 참석하여 중소기업들의 진출

을 지원했고, 원자력 기자재 공급망 유지관리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동반성장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튿날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자재 수출 교두보를 마련을 지원했다. 초청한 국가는 CNPE(중국), Orano Korea(프랑스), Siempelkamp(독일), SNN(루마니아) 등 6개국 8명이 참석하였다. **KMIF**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주요 인사 순람



산업전 부스에서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